

문화



창작국악 무대로 초대

17일 정기연주회, 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 국악단 '도드리' 13주년 정기 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단장 김재섭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국악 창작곡들이 연주된다. 특히 연주 레퍼토리 중 국악관현악곡 '빛고을 스토리'(작곡 윤병원), '춘정지우'(작곡 이금석)은 도드리가 작곡가에게 위촉한 곡이다. 또 김산옥·윤진우씨가 들려주는 국악가요 '꽃은 지고', '아리요'도 이번 연주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이다. 소금과가야금, 신디사이저, 첼로가 어우러진 'Bibimbap', 배창희씨와 범능스님이 만든 국악가요 '강물처럼',

'뭇난이 아리랑'도 만날 수 있다. 또 민요 '아리랑'을 재즈적 색채를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아리랑'과 '화이트크리스마스',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려준다. 김종일·이영희·홍윤진·김현무·박현정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70-79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직장인 밴드 '샤이닝 스톤'

음악으로 우리문화 해외 알린다

김정훈 교수 등 5인조... 내년 '한일 라이브' 공연

영양 '왕인박사 축제' 연계 日과 문화교류 확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직장인 밴드다. 이들 밴드는 일상에 지친 생활인들에게 해방구 같은 곳이다. 특히 이들은 흰겨운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며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 교류'에까지 눈을 돌리는 직장인 밴드 '샤이닝 스톤'의 발돋움 이 눈에 띈다. '샤이닝 스톤'은 2011년 1월 15일 일본 도쿄 인근 사가미하라시에서 열리는 '한일교류 라이브 2011'에 참가한다. 이 공연에는 일본 직장인 밴드 4개팀과 재일동포와 일본 청소년들이 함께 꾸린 사물놀이패 '작은 웃고추'도 함께 출연한다. '샤이닝 스톤'은 2011년 1월 15일 일본 도쿄 인근 사가미하라시에서 열리는 '한일교류 라이브 2011'에 참가한다. 이 공연에는 일본 직장인 밴드 4개팀과 재일동포와 일본 청소년들이 함께 꾸린 사물놀이패 '작은 웃고추'도 함께 출연한다. '샤이닝 스톤'은 이번 공연에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 어떡해' 등 한국 가요와 일본 노래 '뚝보(잡자리)'를 연주한다.

지난해 결성된 '샤이닝 스톤'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정훈(48·전남 과학대) 교수를 비롯, 이황희(49·세전 기타·전남대 생물학과 교수), 김철(49·퍼스트 기타·명지전문대 겸임교수), 전영규(46·베이스 기타), 사엽가 김성범(46·키보드)씨 등 5인조로 구성돼 있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세명은 석산고 동기동창이고, 김정훈씨와 전영규씨는 조선대 재학시절 함께 그룹사운드 생활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2년째 기타를 배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 황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명은 오랫동안 악기를 만져왔었다. '샤이닝 스톤'은 지금까지 석산고 개교 30주년 기념음악회와 광주 풍양동에서 열린 가족음악회에 출연했었다. 이들이 꿈꾸는 건 '음악'을 통한 해외문화교류로 이번에 직접 기획

한 '한일교류 라이브 2011'이 그 첫 번째 결실이다. 일본어를 전공한 김정훈 교수가 정교한 리듬을 담당하며 김정훈 교수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특히 일본에서 백제 페스티벌을 여는 등 왕인 박사를 기리는 일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 영양 '왕인박사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인박사 지키는 회의' 고문 한상수(오사카국제대) 교수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으며 멤버인 전영규씨는 창작곡 '왕인박사'를 작곡중이다. 김정훈 교수는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밴드 '샤이닝 스톤'의 공연 모습.



하린 시인 첫 시집 '야구공을 던지는 몇 가지 방식' 출간

지난 2008년 계간 '시인세계'를 통해 등단한 하린(39·사진) 시인이 첫 시집 '야구공을 던지는 몇 가지 방식' (문학세계사 펴냄)을 냈다. 시집에선 삶의 비애와 진실이 담긴 쓸쓸한 풍경들이 경쾌한 리듬을 타고 번진다. 표제작 '야구공을 던지는 몇 가지 방식'은 한 가족의 삶을 '야구'에 비유하고 있다. 시인은 야구장의 투수가 던지는 공의 구질에 빚대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도태되는 상황과 살아

남는 생존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가족의 암울한 삶을 직구, 슬라이더, 포크, 커브, 마구로 구분해 해석적으로 그려낸다. 하 시인은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주요 소재로 다룬 '8일째 날' 등의 시를 통해 도

시의 비극적 일상이 빚어낸 폭력성을 미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하 시인은 주로 TV, 만화, 영화, 광고, 낙서 등 대중문화의 틀을 이미지 생산이나 시적 설정을 위해 차용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하 시인의 매력이자 강점이다. 하 시인은 영광 출성으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계간 '열린 시학' 편집장으로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문화 꾸준히 확대... 중앙 넘어설 것

문광부, 2011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발표

내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지역문화가 중앙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 문화재단이 활성화되는 등 문화정책과 지원제도에서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지역문화 예술축제의 국제화·전문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 등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문화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 전시 같은 '착한 예술'이 대세를 이루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QR코드가 확산하며 프로 작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콘텐츠 생산능력을 갖춘 '크

레이터'(Creator+Consumer)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713만명에 이르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인구 규모와 높은 소득 수준, 소비력을 앞세워 문화계의 새 주역으로 떠오르고 주한 외국인들로 인해 진정된 다문화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내다봤다. 또한, 다국적 문화협약이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각국의 문화재 환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 등 문화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전자책 보급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력육성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도 10대 트렌드에 포함됐다. 이번 결과는 문화예술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해결이나 미래예측을 하는 방법)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iano'



'대화'

프랑스 거장을 만나다

16일부터 '장 뒤뷔페' 전 광주신세계 갤러리

프랑스의 대표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뒤뷔페(Jean Dubuffet·1901~1985년)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장 뒤뷔페는 프랑스 미술교과서에 등장 1순위를 차지할 만큼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작가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6일~2011년 1월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개점 80주년 기념해 '장 뒤뷔페'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인 '우루루프'(L'Hourloupe) 연작 등 22점을 선보인다. 우루루프는 불어로 으르렁거리는 늑대 소리를 뜻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담고 있다. 우루루프 연작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

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검은 테두리 안에 흰색과 붉은색, 푸른색의 단순한 색 조합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된 이들 작품은 복잡한 삶과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또 '멋진 남자' 등의 작품은 사람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고, '인물이 있는 카스티야 풍경'은 맑고 투명한 하늘색을 담았다. 한편 뒤뷔페는 미술 공부를 했지만 예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작품 활동을 두 번이나 그만뒀다. 그동안 가업을 이어 와인 도매업을 하기도 했지만 1940년대부터 다시 그림에 전념하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해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18일 연주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가 협주곡 연주회를 개최한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연주곡목은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1번' 1악장, 쿠르셀의 '블러리넷 협주곡 2번' 1악장, 생상의 '첼로협주곡 1번' 1악장 등이다. 협연자는 오예원·나경채·민선지·김지선·박혜원·윤선웅·김상기씨다. 2부에서는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주용>

<민선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규모를 키워 재탄생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음악사랑'을 운영하는 등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BC Kwangju Broadcasting Cultural Program '겨울방학 신나는 해외여행' (Winter Vacation Exciting Overseas Travel). The ad features a vibrant background image of a tropical beach with people swimming and a large pagoda. Text includes program details, dates (2011년 1월 6, 10, 14, 18, 22, 26),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It also lists various travel package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program.